뜨락

경기외국어고등학교 신문

20호

GAFL, A World Class Institution

GAFL 경기외국어고등학교
Gyeonggi Academy of Foreign Languag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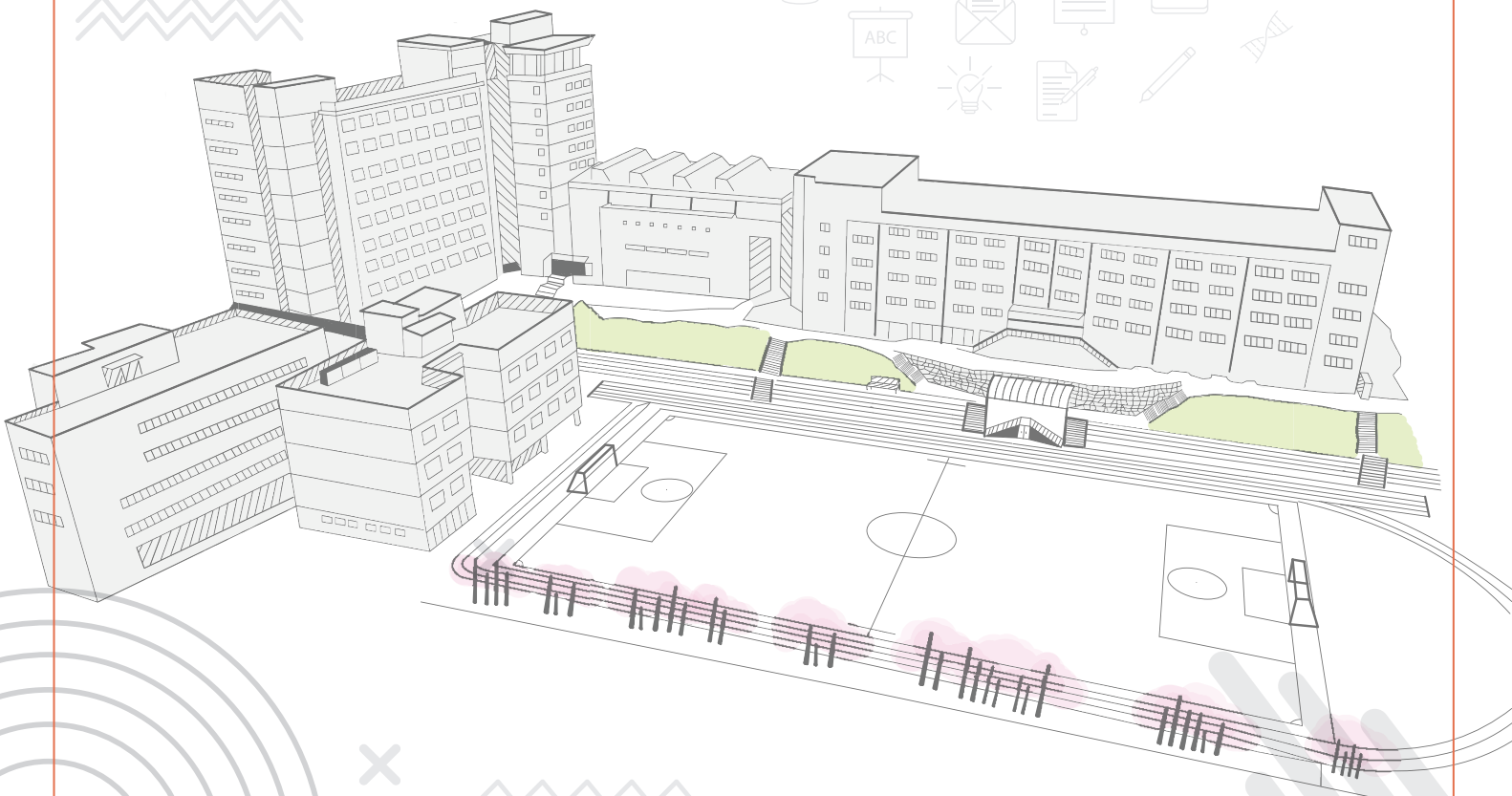
발행처 : 경기외국어고등학교
기 획 : 지도교사 이기찬, 부장 곽예서, 차장 마유민
취 재 : 곽예서, 마유민 외 9인
편 집 : 곽예서
주 소 : 경기도 의왕시 고산로 105번길30(고천동)
전화번호 : 031-361-0500
팩스번호 : 031-361-0598

Contents

02 일상 속의 두려움, 묻지마 범죄
04 소비자 참여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란?
05 매슬로의 5단계 욕구 이론
06 '국민사형투표' 현실 불가능해 더 통쾌하다.. 과연 옳은 정의인가?
07 지나친 다이어트, 어떤 일이 일어날까
08 MBTI 검사가 불러온 비극적인 결과
09 촉법소년, 갈림길에 선 소년법 규정
10 '오펜하이머 15세 관람가'... 국내 개봉 영화 상영 등급 논란
11 사우디리그의 급부상과 그에 따른 영향력
12 칼부림

뜨락x다림 연합 칼럼

13 K-교육 마케팅, 한국의 교육 산업에서의 혁신과 도전
15 어디에서 공부해야 성적을 더 잘 받을 수 있을까?
16 중국의 경제 발전과 이에 따른 교육의 변화
18 우리나라의 교육 문제점과 언론의 영향 및 취해야 할 자세
19 교권&학생권
23 GLASO ABOUT CHAT GP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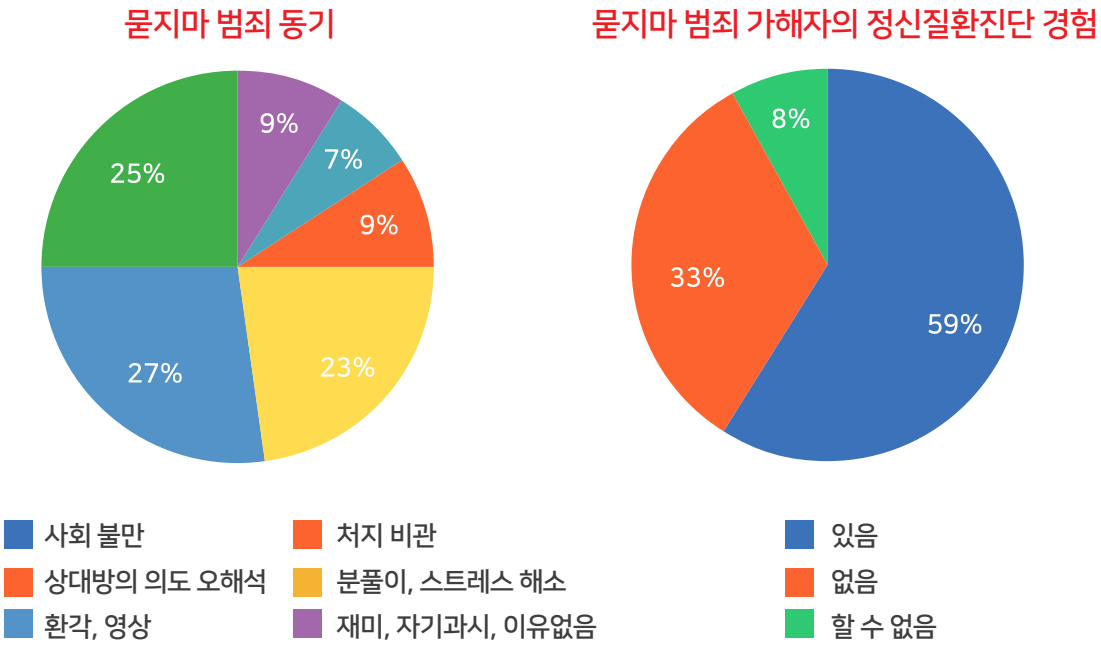
일상 속의 두려움,
묻지마 범죄

최근 흉기 난동 등의 무동기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무동기 범죄는 흔히 묻지마 범죄라고 불리며 이상 동기 범죄라고도 불리는데, 범죄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동기 없이 저질러지는 범죄를 일컫는 말이다. 이러한 무동기 범죄가 발생하는 원인은 대부분 사회에 대한 불만, 자기 처지 비관, 상대방의 의도 오해, 분풀이, 환각/망상, 재미, 자기과시, 이유 없음 등으로 다양하다. 그러나 아직 무동기 범죄의 명확한 유형이나 분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무동기 범죄의 특징으로는 첫째, 폭력행위의 동기가 구체적인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닌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 있다. 둘째, 가해자는 실직, 장기간 실업, 저소득 등 사회적 문제 상황에 처해있는 사람들이며, 이로 인한 좌절을 경험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셋째, 무동기 범죄의 가해자들은 전혀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한다. 이는 가해자들이 자신의 실패 원인을 추상적인 '사회' 또는 '사람들'에게 투사하기 때문이다. 넷째, 범죄자의 감정 상태나 상황에 따라 범위가 확장될 수 있다. 추상적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감정이 표출되기 때문에 범위가 언제든지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무동기 범죄의 피해자 수가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인 이유는 우리나라의 총기 규제가 엄격하기 때문이다.

무동기 범죄의 국내 사례로는 2019년 발생한 안인득 진주 방화 사건이 유명하다. 이 사건은 2019년 4월에 발생한 사건으로, 안인득이 자신이 사는 진주시 아파트 4층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려고 집 밖으로 나온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여러 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이다. 같은 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안인득은 평소에도 주민들을 상대로 욕설을 퍼부었으며, 윗집에 이유 없이 오물을 투척하거나 윗집 사람에게 계란을 던지는 등 주민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행패를 부렸다고 한다. 안인득은 2008년 공장에서 다쳐 허리 디스크가 생기고 나서 산업 재해를 인정받으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으며, 그 이후에 피해망상 증세가 발현되기 시작하였다. 안인득의 범행에서 무동기 범죄의 특징 중 하나인 피해자 선택의 임의성을 찾을 수 있다.

무동기 범죄의 외국 사례로는 2007년에 발생한 버지니아 공대 총기 난사 사건이 있다. 2007년 4월 버지니아 공대에서 이 대학의 학부생이자 한국인인 조승희에 의해 32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부상당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다. 조승희는 그의 내성적인 성격으로 인해 학창시절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고 한다. 또한 이전에 선택적 함구증과 우울증 진단을 받은 기록도 있으며, 대학교 과제에서 폭력적인 글을 제출하기도 했다고 한다. 조승희는 과거 학교폭력이라는 범죄 동기가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이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기 위한 범행이었으며, 피해자들이 조승희와 크게 관련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무동기 범죄의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무동기 범죄의 또 다른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바로 정신질환 이력이 있다는 것이다. 안인득은 조현병과 피해망상이 있었고, 조승희는 선택적 함구증과 우울증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 실제로 무동기 범죄의 가해자 중 환각, 망상에 의한 범행은 26.5%로 무동기 범행 이유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정신질환진단 경험이 있는 가해자가 58.3%, 정신과 치료 경험이 있는 가해자는 54.2%이다. 그 중 조현병 진단을 받은 가해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무동기 범죄에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하는 부분은 처벌과 관련된 부분이다. 무동기 범죄의 처벌은 단순 폭행에 그치는 경우 단순 폭행죄,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상해죄가 적용된다. 무동기 범죄라고 해서 특별히 더 강력한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무동기 범죄의 대부분이 강력범죄이며,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주고 공포심을 유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다른 범죄와 구별하여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진다.

무동기 범죄 증가 추세에 따라 무동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온라인의 익명성을 악용한 사이버 범죄 활동에 대한 위협 정도 데이터를 수집 및 추적하는 시스템인 '사이버 호크 아이' 등과 같은 시스템이 많이 도입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온라인 시스템 말고도 재범 방지 프로그램 등과 같은 범죄 예방 제도도 생겨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무동기 범죄의 재범률은 75%라고 한다. 따라서 무동기 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센터 등에서 재범 방지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일 것이다. 또한, 무동기 범죄 가해자의 75%가 무직이라는 점에서, 취업과 관련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소비자 참여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소비생활의 장이 디지털로 전환된 가운데, 건강 관리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 커짐에 따라 치료 중심의 대응, 사후적 관리에서 사전 예방까지 고려하는 헬스케어에 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IT 등 디지털 기술과 융합하여 개인의 건강과 의료에 관한 정보, 기기, 시스템, 플랫폼을 다루는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이 전세계적으로 크게 조명되고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이 접목되어 환자 모니터링 및 질병 예방, 치료 등 전반적인 의료 영역까지 아우르며, 개개별 맞춤화된 의학을 제공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헬스케어의 효율화가 현 시대의 주요 과제로 떠올랐으며, IT 기술의 발전을 토대로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급성장 하고 있는 추세이다. 구체적으로, 2020년에서 2024년까지 글로벌 헬스케어 지출 성장률은 연평균 3.9%로, 이전 5년 연평균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국내총생산에서 글로벌 헬스케어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최근 평균 10%를 상회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의 규모는 결국 2027년에 610조원에 이를것으로 전망되는 등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때,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의 핵심 주역이자 참여자는 소비자로, 헬스케어 시장은 소비자 개인의 건강 및 의료정보 등 사용자가 제공한 빅데이터를 토대로만 작동할 수 있다. 그렇다면 디지털 헬스케어의 활성화가 소비자의 편익에 미친 영향은 무엇일까? 우선 디지털 헬스케어의 부상은 사회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자원의 한계를 극복하였다는 점에서, 경제적으로는 팬데믹으로 인한 이례적 경기 불확실성과 스태그플레이션 위기의 부작용을 최소화하였다는 점에서, 산업적으로는 기술융합을 통한 신산업을 촉발하여 미래먹거리를 창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ICT 기술로 소비자의 자가 건강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건강이해도를 향상시켜 의료공급자와 의료소비자간 정보비대칭을 해소해주기도 한다. 이러한 자가관리를 통해 소비자 개인이 측정한 생활습관 기반 건강데이터와 개방된 공공데이터, 의료서비스 이용을 통해 보건의료데이터를 정보화하고, 알고리즘으로 분석해 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는 정보주체로서 수집, 저장, 분석, 활용되는 유통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데이터 이동권 및 자기결정권을 확보하고, 데이터의 유통 및 거래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기도 한다.

반면, 시장의 디지털화에 초점을 맞추다보면 소비자문제 및 보호에 대한 부분에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의 주 이용자이자 데이터 공급자인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리에 대한 다각적 논의가 필요하다. 헬스케어 데이터는 개인 신체, 금융, 행동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한다. 이 가운데 의료서비스 공급자, 플랫폼 사업자 및 관련 민간 사업자까지도 개인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기에 보안 문제 및 소비자 결정권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개인정보 누출 및 악용 등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경우 디지털 헬스케어를 통해 절감한 의료비용 이상의 사회,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한 데이터 정책을 말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 수준은 소비자집단과 격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서의 소비자 소외 및 형평성 문제를 해소해야할 것이다. 미국과 유럽은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 강화를 위한 도구를 개발하였고, 우리나라 또한 집단별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적 접근과 교육 등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디지털 시대의 디지철헬스 산업 발전과 국민 의료복지 증진 정책 실행의 성공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참여가 필수적 요소 중 하나이다. 공정한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은 물론이며, 개인정보가 공공재로서 사회 전체의 후생 증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과 정책을 꾸준히 연구해야한다.

▶ 2602 곽예서

매슬로의 5단계 욕구 이론

여러분은 인간의 욕구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 심리학적 측면에서 인간의 다양한 욕구와 그에 따른 특성들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 불리는 만큼, 다른 동물들과는 구별되는 여러 가지 상당히 내면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모든 욕구를 5가지 단계로 분류한 것이 바로 매슬로의 5단계 욕구 이론입니다.

매슬로는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철학자로 인본주의 심리학의 창설을 주도하였으며,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에서부터 사랑, 존중 등 내면적인 욕구와 궁극적으로 자기실현에 이르기까지 충족되어야 할 욕구에 위계가 존재한다는 '욕구 5단계 설'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이론에 의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섯 가지 욕구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들 다섯 가지 욕구에는 우선순위가 있어서 단계가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욕구인 생리적 욕구가 가장 첫 번째이고, 이 욕구가 충족되면 안전해지려는 욕구, 안전 욕구가 충족되면 사랑과 소속의 욕구, 더 나아가 존경 욕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아실현의 욕구를 느끼게 됩니다. 즉, 사람은 5가지 욕구를 모두 만족하려 하되 우선순위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욕구부터 차례로 만족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욕구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첫 번째 단계는 생리적 욕구입니다. 먹고, 자고, 입는 등 우리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이 포함된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안전 욕구입니다. 이는 신체적, 감정적, 경제적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소속과 애정의 욕구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은 욕구, 사랑받고 싶은 욕구, 어느 한 곳에 소속되고 싶은 욕구, 친구들과 교제하고 싶은 욕구, 가족을 이루고 싶은 욕구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존경 욕구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명예욕, 권력욕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누군가로부터 높임을 받고 싶고, 주목과 인정을 받으려 하는 욕구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는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습니다. 매슬로는 이것을 최고 수준의 욕구로 강조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아실현의 욕구는 이전의 모든 단계가 기본적으로 충족돼야만 이뤄질 수 있는 마지막 단계로 자기 발전을 이루고 자신의 잠재력을 끌어내어 극대화할 수 있는 단계라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매슬로는 죽기 전에 5단계 욕구 피라미드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각 단계는 어느 한 단계가 다른 단계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욕구를 분류한 것이 아니고, 각각은 모두 중요하되, 단계에 따라 차례로 원하는 욕구가 변화한다는 것을 시사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욕구 피라미드에 포함된 각 욕구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학자들의 이견과 비판이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한 비판의 사례를 들자면, 롤러와 서틀이 말하길, 개인의 욕구가 정적인 맥락(static context)이 아닌 동적인 맥락(dynamic context)에서 설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욕구는 욕구가 발현되는 다양한 상황에서 끊임없이 변화하여 나타나고 때로는 각 욕구가 상호작용하며 나타나기도 했는데 매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은 각 욕구의 변동하는 모습을 설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동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욕구에 대한 설명도 부족하다는 점도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1943년에 제시된 매슬로의 5단계 욕구 이론과 욕구 피라미드는 행동 과학에서 인간의 동기를 설명하는 인지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이론 중 하나라고 평가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매슬로가 주장한 욕구 단계 이론은 인간의 동기를 설명하는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모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매슬로의 5단계 욕구 이론을 보완시킨 앨더퍼의 ERG 이론과 다양한 현대적 관점의 욕구 단계 이론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매슬로의 5단계 욕구 이론은 심리학계의 위대한 이론이자 매슬로의 큰 업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 2318 유승우

‘국민사형투표’ 현실 불가능해 더 통쾌하다.. 과연 옳은 정의인가?

사진출처: SBS 공식 홈페이지

지난 8월 10일 첫 방송되었던 SBS 목요드라마 ‘국민사형투표’는 악질범들을 대상으로 국민사형투표를 진행하고 사형을 집행하는 정체 미상의 개탈(투표 가담자 전원)을 추적하는 이야기를 그린 국민 참여 심판극이다. 현실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있어서는 안되는 ‘국민사형투표’를 소재로 흥미로운 전개를 펼치며 시청자들에게 강력한 카타르시스와 대리만족을 선사하였다. 작품에 관해 감독은 “현실의 법들은 가해자를 처벌하는 법이 많다고 생각한다.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걸 한 번쯤 생각해보고자 한다” 는 메시지를 전하며 이 드라마의 취지를 말하였다.

하지만 드라마 속 국민사형투표는 짜릿하고 속이 뻥 뚫리는 사이다라고만 할수는 없다. 극중 개탈은 자신의 방식이 ‘올바른 정의’라 외치며 무자비하게 살인을 이어간다. 살인의 대상자가 악질범일 뿐 개탈이 연쇄살인범이라는 것에는 틀림이 없다. 대한민국 경찰과 사법부를 불신한다는 개탈의 외침이, 그가 주장하는 ‘올바른 정의’가 진정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여지가 많다. 또 행여 개탈이 국민사형투표를 정의로운 이유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그 파급력까지 반드시 정의로운 것은 아닐 수 있다.
극에서는 개탈의 범죄사실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정치판에도 관여되어 국민들의 여론을 움직이는 힘을 본 국회의원들은 ‘개탈’의 힘을 악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즉, 개탈과 국민사형투표를 정치적 이슈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탈은 자신의 국민사형투표가 이렇게 오용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까.

현재의 우리나라 법은 가해자들에게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합당한 벌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이 대다수이다. 이에 따라 드라마속 ‘개탈’ 처럼 당한것 만큼 그것의 배로 갚아주는 행동이 과연 올바른 정의일지 의문이다. 의도와 목적은 달라도 누군가를 살인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중대한 범죄임은 틀림없다.

극악무도한 범죄가 난무하는 2023년 대한민국. 가해자의 합당한 처벌은 피해자를 위해서는 물론, 앞으로 일어날 범죄를 막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로도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반드시 옳은 것인지, 아니면 더 많은 것을 고려한 처벌이 옳은 것인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 2203 김수민

지나친 다이어트,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 세상에 자신의 외모에 만족해 하는 사람은 공주병, 왕자병 가진 사람밖에 없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말에 동의할 것이다. 점점 발전하는 인터넷 매체와 함께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자신의 외모를 다른 사람들에게 비교하고 연예인과 인플루언서를 동경하며 극단적인 기준에 맞추고 있다. 마른 몸이 이쁘고 보기 좋다는 사회적 분위기와 주변의 사소한 말들은 무의식 속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지나친 다이어트는 결국 거식증과 같은 섭식장애까지 초래하고 있다.

살면서 '다이어트'에 대해 관심을 가져본 경험이 있는가? 지금 시대에는 살면서 사람이라면 한번쯤은 생각해봤을만한 흔한 주제라고 생각된다. 다이어트란, 체중을 줄이거나 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제한된 식사를 하는 것을 뜻한다. 물론 건강을 위한 적당한 다이어트는 좋은 결과를 낳지만, 건강을 해칠 수 있을 만큼의 지나친 다이어트나 극심한 다이어트 강박으로 인해 정신병에 시달리는 안 좋은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10대부터 어른들까지 다양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있지만 특히나 10대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모두 주변에서 보고 느낄 수 있듯이 중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외모 관심이 높아지고 아이돌이나 연예인의 몸을 동경하며 정상 체중이나 저체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이어트를 하는 학생들이 빠르게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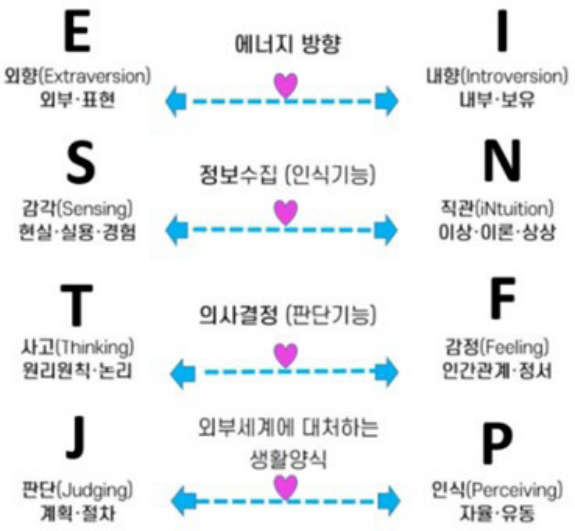
하지만 다이어트에 대한 지나친 관심은 청소년의 성장과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대부분은 학생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이 늘어나 운동 할 시간이 없거나 귀찮고 힘들다는 이유로 먹는 양을 극단적으로 줄이는 다이어트 방법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건강하지 못한 다이어트 방법은 신체적 부작용이 클 수 밖에 없다. 먹는 것을 극단적으로 끊는 다이어트를 한 사람들을 보면 섭식장애에 걸린 사람이 많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섭식장애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신경성 식욕부진증과 신경성 폭식증을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다. 신경성 식욕부진증, 또는 거식증은 마른 몸매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나 살이 찔지도 모른다는 병적인 공포로 인해 식사를 몸이 거부하는 증상을 말한다. 이는 모든 정신질환 중 치사율이 가장 높은 질환으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거식증을 청소년이 가장 우선적으로 치료해야 하는 질환 중 하나로 권고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거식증 환자 중 10대 청소년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거식증 진료 받은 10대는 2016년에 7%에서 2020년에 8%로 5년 사이에 1.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프로아나(pro-anorexia)'는 '찬성'을 뜻하는 pro와 '거식증'에서 딴 ana의 합성어로, 거식증 찬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는 인터넷에서 다이어트를 치면 흔히 나오는 단어인 '뼈말라'를 원하는 사람들이 거식증에 걸리기를 희망하며 치료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다른 섭식장애로는 신경성 폭식증이 있다. 신경성 폭식증은 많은 양의 음식을 폭식이라고 부를 만큼 먹고, 먹은 뒤에는 체증이 느는 것을 두려워해 몸 밖으로 배설해내는 행동을 말한다. 먹고 난 직후에 변비약을 지나치게 먹거나 구토 유발을 위해 구토제를 사용하거나 손가락을 넣기도 한다. 몸 밖으로 배설을 한 후에는 지나치게 먹었다는 죄책감으로 인해 금식을 하다가 또 폭식을 하게 되어 계속 반복이 되는 한번 시작하면 멈추기 힘들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 두개의 섭식장애는 흔히 음식의 양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지나친 다이어트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누구에게나 생기기 쉬운 정신질환이지만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완전히 회복할 수 있다. 하지만 본인이 거식증이나 폭식증을 앓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흔히 볼 수 있고 주변인들에게 자신의 질환을 알리거나 병원 치료에 거부감을 느끼며 꺼려하는 사람이 대다수이다. 그러나 정신질환은 혼자서는 고치기 무척이나 어렵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여러 종류의 치료가 있지만 전문가에 의하면 10대에게는 가족치료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한다.

이쯤되면 섭식장애 때문에 괴롭지 않는 건강한 다이어트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들 것이다. 요요가 오지 않고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먹는 양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것보다 탄소화물 섭취를 줄이는 대신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많이 먹고, 간식이나 정크푸드의 섭취를 제한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굶는 것과 같은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다시 전처럼 건강한 삶으로 돌아가기 무척이나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똑똑하게 다이어트를 함으로서 본인의 건강한 몸과 삶을 지키는 것을 우선으로 두고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

▶ 1304 김시우

MBTI 검사가 불러온 **비극적인 결과**



INTJ, ENFP, INFP, 등등 알파벳 4개로 자신의 성격을 정의하는 "MBTI"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소셜 사이트만 들어가면 보이는 이 MBTI는 정확히 무엇일까요?

MBTI는 융(Carl Gustav Jung)의 심리 유형론을 근거로 '이사벨 브릭스 마이어스'와 '캐더린 쿡 브릭스' 두 모녀가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고안한 자기보고식 성격유형지표입니다.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MBTI Form"은 약 6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2분 내외로 검사함으로써 4가지 선호지표를 토대로 16가지 선호유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MBTI를 나누는 4가지 유형중 첫 번째는 에너지의 방향을 기준으로, 외향인 "E"와 내향인 "I"로 나뉩니다. 두 번째는 정보수집(인식가능)을 기준으로, 감각적인 S와 직관적인 N으로 나뉩니다. 세 번째는 의사결정(판단가능)을 기준으로, 사고적인 T와 감정적인 F로 나뉩니다. 마지막으로는 외부세계에 대처하는 생활양식을 기준으로 판단적인 J 와 인식적인 P로 나뉩니다. 이렇게 4가지 분류기준을 가지고 16개의 유형으로 나누어 특정 성격유형을 제공합니다.

정말 간편하고 무료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검사는 엄청난 인기로 요즘 대화에 빠지지 않는 주제입니다. MBTI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의 다양한 분야와 융합하고 있습니다. Best&Worst조합으로 자신과 최고 또는 최악의 성격조합을 알아볼 수도 있고, 심리테스트로 연결되거나 성격에 맞는 최적의 직업을 추천하기도 합니다. 또한 MBTI간에 잘 어울리는 연인의 특징을 설명해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엠비티아이는 사람들에게 여러모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검사가 초래한 부정적인 결과는 없을까요? MBTI 검사는 사람들 간의 분쟁을 유발하고 사회적으로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를 들어 소셜 사이트에서는 특정 MBTI를 편향된 정보로 국한시키며 그 MBTI를 지닌 사람들을 속단하고, 그 사람을 MBTI 하나만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더 나아가 사람들은 '기피해야 하는 MBTI'라는 것을 만들어내며 특정 MBTI에 속하는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과도한 몰입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가장 유명한 논쟁 'F와 T'논쟁으로, 극단적으로 감정에 치중된 사람들과 이성적인 사람들은 서로의 싸움으로 일반화의 오류를 만들어내며 서로에 대한 옳지 않은 정보를 인식하고 혐오하며 적대감을 쌓기도 합니다. 긍정적인 면만 가지고 있을 것 같았던 MBTI검사는 이러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MBTI는 좋고 나쁜 것, 정상이나 비정상을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6가지 성격유형은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듯 모두 평등한 가치이며 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검사결과를 맹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검사의 쓰임이 올바르고 건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 2308 마유민

촉법소년, 갈림길에 선 소년법 규정

하나의 고질병처럼 자리잡은 촉법소년의 나이 규정은 여전히 큰 화제이다. 촉법소년이란 사건 당시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이 범죄를 일으킨 소년범들을 칭한다. 법무부는 만 14세 미만을 미성숙한 나이라고 판단하여 어른이 되었을때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돕자는 취지로 별도의 형사처벌 없이 봉사활동이나 소년원 송치와 같은 보호처분을 내린다. 물론 우발적인 사고로 발생한 범죄도 존재한다. 하지만, 촉법소년들은 대부분이 솜방망이 처벌을 알고, 이러한 점을 악용해 교묘하게 범죄에 적용시키기도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촉법소년의 나이제한을 더 낮추어야 할까?

촉법소년의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 10여년 동안 가정 법원에 접수된 촉법소년의 패륜범죄, 강력범죄, 성폭력 등 2017년부터 2022년 사이 법원 접수건수 기준으로 촉법소년 범죄는 58%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중에서도 패륜범죄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발생하곤 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3월에는 자신의 보호자인 고모가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13세 중학생 A군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서울가정법원에 송치되기도 했다. 또, 성폭력 범죄는 2012년 200여 건에서 2022년 800여 건으로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돼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등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는 추세이다. 꾸준히 증가하는 소년범죄에 대해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로 충동이 늘고, 무분별한 인터넷 사용이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그렇다면 촉법소년이 현재 받고있는 형량이 과연 적합할까? 법무부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 추진하려 애쓰고 있다. 전체 촉법소년 보호처분 중 13세 비율이 약 70%라는 점과 심상찮은 소년범죄의 양상이 이러한 대안을 고려하게 한 것이다. 소년범죄는 죄질, 계획성, 잔인함, 지능성이 성인범죄 못지않기에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 강력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게는 형사처분을 내려야한다는 주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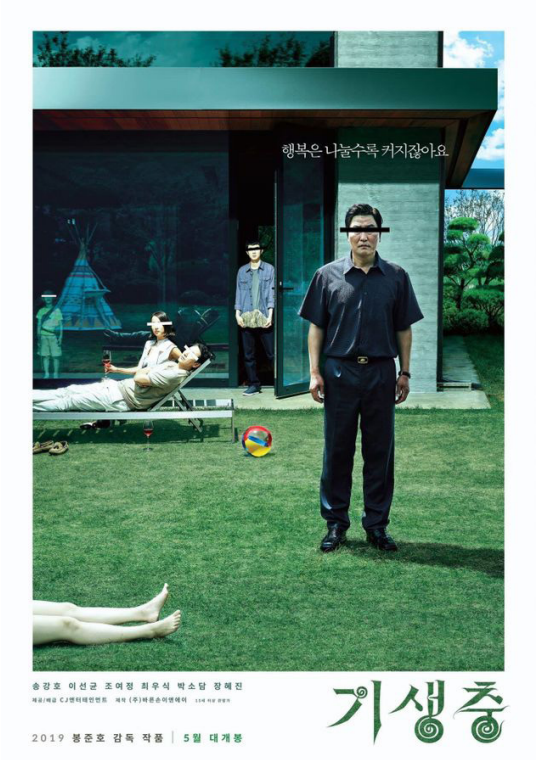
전문가 또는 일반 시민들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찬성vs반대 명확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디어리얼리서치코리아에서 성인 3506명을 대상으로 대상한 결과 80.2%가 연령 하향을 찬성했다. 이와 더불어 여러 전문가들은 소년사법 악용 사례에 초점을 맞추었다.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점을 악용한 촉법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흉포화한다는 지적이 있따르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학생들끼리 범죄를 저지른 뒤 만 13세가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노려 빠른 연생 동급생에게 떠넘기는 경우도 더러 있고, 불과 며칠 차이나지 않는 생일 문제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허점을 지적했다. 이어 범죄는 늘고 점점 잔혹해지는 범죄 수법을 고려하여 처벌을 내려야한다는 요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대 측은 연령 하한 후 범죄 예방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각심을 줄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세종 조선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사형제도가 시행된다고 해서 범죄가 줄어들지 않은 것처럼 예방효과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년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되는 소년의 가정환경 개선이나 정신질환 치료 등 적극적인 사회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촉법소년 연령만 낮추는건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년범죄의 증가와 흉포화 등을 이유로 형사처벌 가능 연령을 13세로 하향하는 방안과 강력처벌, 형사처벌로 인해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두가지 관점은 모두 타당하다. 우리는 앞으로 살아갈 어린 친구들에게 무거운 족쇄가 될 수도 있는, 선의의 피해자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연령 하향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야한다.

▶ 1601 강승주

‘오펜하이머 15세 관람가’...
국내 개봉 영화 상영 등급 논란



최근 개봉한 영화 ‘오펜하이머’가 논란에 휩싸였다. 오펜하이머는 지난 8월 15일 개봉 이후 박스오피스 1위로 누적 관객수 250만 명을 돌파할 만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영화이다.

오펜하이머가 논란에 휩싸인 이유는 바로 오펜하이머의 상영 등급 때문이다. 오펜하이머의 국내 상영 등급은 15세 관람가로, 15세 이상이라면 자유롭게 볼 수 있고, 15세 미만이라도 보호자가 동반한다면 문제없이 관람할 수 있다.

하지만 오펜하이머는 국내보다 3주 먼저 개봉한 미국에서 이미 ‘R등급(17세 이상 관람가)’을 받았음에도 15세 관람가로 책정되었기에 논란이 되었다. 실제로 네티즌들의 후기에서도 다소 선정적인 장면과 주인공의 사생활에 대한 자세한 묘사로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적잖게 찾을 수 있다.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는 “선정적인 장면과 음주 및 흡연 장면의 수위가 높으나 지속적으로 표현하지 않아 15세 관람가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비슷한 논란은 과거에도 있었다. 영화 ‘기생충’ 또한 선정적이고 잔인한 장면이 포함되어있어 미국에서는 R등급을 받았으나, 국내에서는 15세 관람가로 등급이 책정되어 논란이 되었다.

영화법에서는 영상물에 대한 제한의 이유로 ‘유해물로부터의 청소년의 보호’를 든다. 상영 등급을 통한 영상물의 제한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다. 영화 심의가 관대해짐에 따라 더욱 다양한 작품이 나올 수 있고, 영화계의 발전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다. 하지만, 그에 따라 본래 상영 등급이 갖는 의의가 퇴색될 수 있다. 상영 등급의 변화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에 대해 재고해야할 것이다.

▶ 1723 한유찬

사우디리그 이적

사우디리그의 급부상과 그에 따른 영향력

사우디리그가 국제 축구계에서 빠르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중동 지역의 축구 동맹을 리드하며 세계 무대에서 더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리그는 오일머니를 기저로 최근 몇 년 동안 세계적인 스타 선수들을 자국 리그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우디리그의 이적 시장은 점차 활기를 띠고 있으며, 유럽 등 다른 대륙의 리그와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적 활동은 리그의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국제적인 주목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우디는 국제 축구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국제 무대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에는 AFC 챔피언스 리그와 FIFA 클럽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주최하여 국제 축구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대회 개최는 사우디리그와 국제 축구 사이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역 내에서 축구를 주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사우디 아라비아의 부자들과 기업들은 사우디리그의 팀들에 대한 재무적 지원을 통해 선수들을 유치하고, 인프라를 향상시키며, 클럽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무적 지원은 리그 전체의 수준을 높이고, 국제적인 스타 선수들의 이적을 가능하게 하며, 사우디축구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합니다.

사우디리그는 이러한 요소들을 통해 국제 축구계에서 더 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중동 지역의 축구 동맹을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몇 년 동안 사우디리그의 성장과 발전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그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우디리그의 급부상은 투자와 시설 개선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클럽들은 경기장 및 훈련 시설을 현대화하고 선수들의 복지를 개선하는데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는 국내와 국제적인 미디어 및 스폰서십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어 리그의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사우디리그는 세계적인 강국들과 견줄 수 있는 높은 수준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리그에서 활약하는 많은 선수들이 국제 대회에서도 뛰어나게 활약하며 사우디 축구의 수준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는 사우디리그의 주요 팀들이 국제 클럽 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리그는 현재 국제 축구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영향력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성장세는 국제 축구 팬들과 사우디 아라비아의 축구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 1818 임지헌

칼부림

2023년 7월22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과 8월3일 성남시 서현역 인근에서 20대 남성이 칼부림 난동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위 칼부림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으며, 폭력과 혐오로 인해 대중들과 희생자들 모두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 이로 인해 인종 갈등과 혐오가 사회에 넓게 퍼지고 있으며, 이는 계속해서 개인과 집단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무기 규제의 미비함으로 인해 무기가 쉽게 유통되고 있으며 계속해서 칼부림 예고가 늘어나 폭력 사건의 피해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칼부림 사건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어난 결과다. 우선 인종적 긴장과 파견 때문이다. 사회적 차별과 편견은 다른 인종과 문화에 대한 적대감을 증가시켰으며 이는 폭력적인 사건으로 이어졌다.
다음으로 정서적 문제이다. 신림동 칼부림 가해자 말에 따른 칼부림 난동 이유는 타인 또한 자기 자신처럼 불행하게 만들고 싶다는 충동적 판단이라고 한다. 이처럼 가해자들의 정서적 문제, 분노, 불안과 우울 등의 감정 문제가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고립이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개인들은 소통이 없고 오직 가상 세계에서의 폭력적인 게임 등으로 인해 폭력 사건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신림동 칼부림 사건 이후 '나도 칼부림 사건을 일으키겠다.'라며 인터넷에 흉기 난동 예고 글이 150건이 넘게 올라왔다. 예고 글 중 10대 중학생이 인스타그램에 "1200만 원을 잃어 살 의미가 없다. 한 명당 100만원으로 생각하고 토요일 미사역 시계탑 앞에서 흉기 난동을 하여 12명을 죽일 것."이라는 글을 남겨 경찰에 체포가 되었다. 하지만 피의자는 실제로 할 마음은 없었으나 심심해서 장난으로 게시했다며 진술했다. 이처럼 관심 유도를 위한 장난식의 칼부림 예고 글들은 국민에게 많은 혼란과 불안을 주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칼부림 예고 글을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 현재 주목되고 있는 이유는 복수 환상 때문이다. 하지만 복수 환상이 그렇게 심한 수준은 아니므로 사람을 죽이는 것 대신 다른 사람이 두려움을 갖게 하는 수준에서 예고글을 쓴 것으로 추측된다. 시민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통해 자신들의 우월감을 느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칼부림 예고 대응책을 강화하는 것을 통해 우리 사회의 불안을 줄여야 한다.

▶ 1819 장동아

K-교육 마케팅,

한국의 교육 산업에서의 혁신과 도전

- 이윤서, 장동아, 강승주, 김수민, 송은채

디지털 혁명의 도래와 코로나19가 맞물려 교육과 기술의 합성어인 이른바 '에듀테크'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교육 시장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고 공부와 학습에 도움을 주는 이른바 '공부 앱'이 대거 등장했다. MZ 세대의 학생들에게 유용한 공부 필수 앱을 소개한다.

콴다는 학생이 자발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는 공부 앱 중 하나로 문제 검색, 질문답변 맞춤형 개념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AI 교육 플랫폼이다. 다양한 공부 앱 중 콴다가 누적 가 입자 7500만명을 달성할 수 있었던 콴다만의 마케팅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그들은 '콴다: 수학 5초 풀이 검색, 모르는 문제 사진만 찍으면 끝'이라는 문구로 광고한다. 이는 편리함과 신속함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큰 이목을 끌었다. 콴다는 무료로 실시간 질문 답변을 통한 문제 풀이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유료전환을 통해 원하는 선생님께 질문할 수 있는 기능을 제 공하며 마케팅 한다. 그들은 개인화된 학습 경험의 제공을 통해 교육의 모든 영역을 융합한다 는 것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열품타는 '열정 품은 타이머'의 줄임말로, 본인의 학습시간을 측정하고 이를 서로 공유하는 어플리케이션이다. 열품타를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열품타는 현재 MZ세대에 초점을 맞추어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와 같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홍보한다. 예를 들자면, 유 튜브나 sns에서 열품타 앱을 이용해 공부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studywithme' 라 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다른 사용자들과 학습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 이러한 콘텐츠는 학습과 자기계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선호하며, 열품타 앱은 학생들의 학습 과정을 더욱 브랜드화 하고 공유함으로써 소통과 영감을 나누는 기회를 만든다. 이러한 이유로 열품타 앱이 대중적으 로 성장하게 되었으며 앞으로의 긍정적 발전이 더욱 기대된다.

설탭은 대학생 멘토들과 중고등학생들을 연결시킨 온라인 과외 서비스다. 설탭은 코로나의 여 파로 대면 수업이 힘들어 비대면에 대한 니즈가 높아진 상황 속 주목받기 시작해 에듀테크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 설탭이 성공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전용 패드를 제공하며 선생님들을 SKY 학생들로만 구성하여 과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설탭은 개념 설명 위주의 선생님, 문제 풀이에 강한 선생님 등 개인의 취향에 맞춰 무제한 매칭 을 무료로 가능하게 하여 학생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 그 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에게도 자체적으로 학습 매뉴얼을 제공하여 과외 준비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는 등 편리성을 제공한다. 설 탭은 위와 같은 마케팅을 도전하며 학생들의 건강한 입시를 돕는 설탭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메가스터디는 메가스터디교육의 가장 중심이 되는 사이트로 사교육 분야에서 가장 먼저 온 라인 강좌를 상용화시킨 업체이다. 메가스터디는 온라인 강좌가 보편화된 오늘날의 입시교육 분야에서도 1위를 고수하고 있다. 이들의 마케팅 전략은 어떻게 교육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걸까.

가장 먼저 '시장의 선점' 이다. 온라인 교육 산업은 동영상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성공의 핵심이다. 이러한 위치에서 메가스터디는 기술적 인프라를 빠르고 다른 기업들보다 더 높은 질로 구축하여 선도기업의 우위를 차지한다. 타 기업과 차별화 된 고화질 동영상 서비스인 '쌩쌩서비스'는 이용자들의 학습 만족도를 다각적으로 제공한다.

스타강사들이 주관하는 관리전략 또한 성공의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인 오프라인 학원에서도 경쟁체제는 존재했지만, 메가스터디의 강사들 간의 경쟁체제는 독특하다. 메가스터디 강사들 간의 경쟁은 자신들의 수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데 수입의 상당수는 '실적'에 따라 분배 받는다. 즉, 철저히 '실력' 중심의 강사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수입을 얻게 되는 구조 로 되어있다. 공교육과 같은 학교 시스템이나 공영방송에서의 교육은 이러한 경쟁 체제가 성립되어 있지 않는 것에 반에, 메가스터디는 경쟁체제를 통한 더 나은 컨텐츠의 제공을 발생시켜 기업의 성장 원동력으로 삼는다.

메가스터디는 차별화되고도 재빠른 인프라 구축과 스타강사들의 관리전략으로 진입장벽을 높이는데 성공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메가스터디가 한국을 대표하는 온라인 교육의 선두주자로 서 확고한 자리매김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선생님과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질문을 해결하고, 혼자서도 학습환경을 만들어 공부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을 가진 앱들을 활용하여 학생들은 집에서도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공 부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에듀테크로 인한 디지털 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교육 불평 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중국의 경제 발전과 이에 따른 교육의 변화

– 이세영, 남유경, 곽예서, 한다경, 박다영

개혁개방이후 중국은 경제적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되었을 때, 내부적 체제정비, 권력 다툼, 이데올로기의 대립 속에서 중국은 인류발전과 세계사에서 주변국의 위치로 전락하여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문화대혁명의 혹독한 시기를 겪고 1970년대 말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의 등장으로 중국 경제 발전이 시작되었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의 성공, 2010년 세계 자동차 제조1위와 조선업1위를 차지하면서 중국의 국제적 지위가 향상했을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발전, 군사력 증강, 학술문화예술적 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었다. 현재 중국은 GDP규모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제적 발전이 교육에는 어떠한 영향과 변화를 일으켰을까? 중국의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중국 정부의 적극적 교육 투자가 가능해졌다. 실제로 국가 재정지출을 확인해보면 교육경비가 함께 성장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교육적 투자는 중국 교육의 내적발전을 유도했다. 개혁개방이후 중국의 경제발전은 21세기를 대비하여 세계적 수준의 100개 일류대학과 중점학문 분야를 육성한다는 211공정으로 이어졌으며 1998년 5월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해 중국은 세계 선진 수준의 일류대학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한다"고 강조하면서 985공정 또한 가동되었다. 이러한 프로젝트에 선정된 대학은 교육부와 상급 기관의 차등적 지원을 받았고, 이를 통해 교육시설의 현대화, 우수교원 유치, 연구 활성화, 교육 기자재 구입 등의 활동을 하여 교육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더 나아가, 현재 중국의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대학의 창조능력을 향상하는 계획"을 실시하려는 의지를 보이며 중국 경제 발전에 이어 교육의 발전까지 빠르게 이끌고 있다.

중국의 경제 발전은 또한 대학을 중심으로 한 연구 환경을 개선하고, 세계 인재를 중국으로 불러들였다. 이는 외국인 유학생이 2001년 61,000명에서 2010년 265,000명으로 크게 증가하게 된 원인이다. 정부의 지원금이 집중된 중국의 주요 대학은 자연스레 교원에 대한 대우가 좋아졌다. 외국인 유학생이 증가하면서 중국 유학생의 국가도 2001년 169개국에서 2010년 194개국으로 다양화되었다. 이는 모두 중국의 경제적, 국제적 지위 향상과 교육적 역량 향상을 의미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의미하기도 한다. 중국을 찾는 유학생은 대부분 아시아 학생들로 이는 중국의 발전이 교육적 발전으로 이어지는 단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유학생 대부분은 실용적 측면의 중국어 학습이 목적이고, 중국의 교육시스템 하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것은 아직 선진국에 비해 미진한 편이다.

이로써 중국의 경제 발전은 중국 정부의 전폭적지지 하에 중국 교육의 양적, 물리적 발전을 유도했고, 이는 다시 중국의 국가발전으로 선순환의 구조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교육 방면에서 긍정적인 변화와 수치상의 발전은 이루었지만, 아직 내적 성숙의 단계로 이르지는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경제체제 개혁과 함께 정부의 교육 투자를 늘려 지역 간, 학교 간 교육 격차를 감소시키고,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장학금을 투입하는 등의 해결책을 통해서 오늘의 부강을 이끈 경제 발전을 내일의 발전을 담보하는 교육 발전으로 확대하는 노력을 꾸준히 해야한다.

어디에서 공부해야 성적을 더 잘 받을 수 있을까?

- 김시우, 김정윤, 유승우, 김태윤, 전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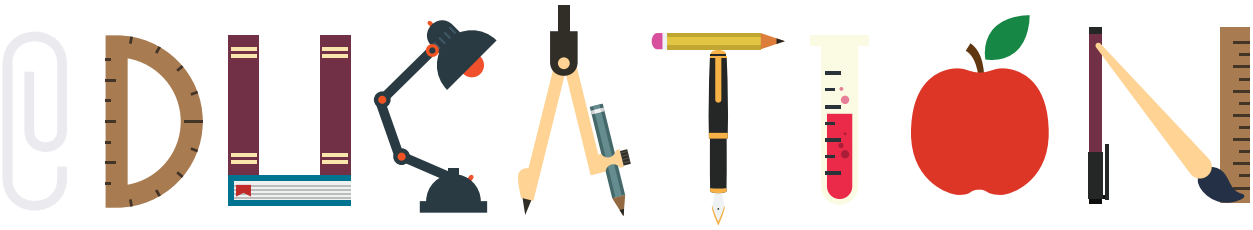
학생들은 크게는 초,중,고 3번, 작게는 셀 수 없이 본인들의 학습환경을 바꾸고, 그들의 교육환경이 바뀐다. 학습환경이란, 새로운 지식, 기능, 태도를 습득하는 장소의 시설, 환경을 총칭하여 이르는 말이다.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학습환경은 학교 교실, 자습실, 독서실 등이 존재한다. 또한 교육환경이란, 교육을 하거나 받고있는 주위의 조건 또는 사회적 상황을 교육환경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집중해야 할 부분은, 공부하는 장소는 학습환경이고 그 학습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교육환경이라는 부분이다.

환경이 개인에게 주는 영향은 오래전부터 중요하게 생각해온 주제이다. 맹자의 어머니는 맹자의 교육을 위해 세 번이나 이사할 정도로 환경을 중요시하였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알코올 중독자 숙모 밑에서 자란 소년은 커서 제2차 세계 대전을 일으킨 주범, 히틀러가 됐으며, 그와 반대로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면서 자란 소년은 사관학교에 입학했으며 제2차 세계 대전을 승리한 장본인이 됐고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 환경이 개인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린 태어날 때부터 경험해왔으며 현재, 미래에서도 우린 겪고, 겪을 것이다.

우리가 근 3년간 겪었던 코로나19를 통해서도 상호작용이 심리에 끼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 수업이 지속되었다. 학생들은 등교를 할 수 없는 상황속에 놓여 동급생과의 상호작용, 선생님과의 상호작용등 주변인과의 상호작용에서의 결핍되어 있었다. 이 결핍이 생긴 학생들은 가족갈등, 친구관계의 어려움, 학업에 대한 압력과 교육환경변화에 대한 어려움을 맞닥뜨려, 코로나 이후의 학교부적응을 겪었다.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습환경은 학습 습득 속도와 학생들의 심리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습환경에서 더욱 효과적인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학습환경이 조성돼야 할까? 정답은 녹지와, 천장까지의 높이에 있었다. 학습에 효과적이라고 하는,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현재의 학교는 학생들이 원활한 의사소통을 진행하면서 학습활동을 하기에는 단절된 부분이 많다. 이러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만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건축학과 교수 유현준의 저서에 따르면, 사람과 자연이 만나는 형식을 취하게 되면, 다양한 생각을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생각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며, 상호작용을 통해 더 다양한 지식을 습득 할 수 있다 하였다. 또한, 그 창의적인 생각을 위해서는 낮은 천장고가 걸림돌이다. 미네소타대 경영학과 조운 메이어스-레비교수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3미터 이상 높이의 천장이 있는 공간에서 창의적인 생각이 나온다고 한다. 2.4미터, 2.7미터, 3미터의 천장이 있는 공간에서 시험을 치르게 했는데, 3미터 천장고에서 시험을 친 학생이 낮은 천장고의 학생에 비해 창의적 문제를 2배나 더 많이 풀었다는 연구 결과다. 하지만, 현재 우리의 학습환경은 교육부에서 지정한 2.6미터로 동일하다. 학생들이 창의력을 위해서는 우리는 3미터가 넘는 경사지붕의 교실도 있어야 하고, 둥그런 천장의 교실도 존재해야 한다. 학생들이 다양한 모양의 천장이 있는 교실에서 공부하고 생각하게 해야 한다.

효과적인 학습환경을 위해서 높은 천장고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이 필요하였다면, 학생들의 편안한 심리조성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녹지이다. 녹색은 사람의 눈에 색상으로써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며, 스트레스를 줄이고 결정능력을 높인다. 녹지가 있을 때 주의집중 능력이 향상되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을 준다. 실제로, 창문가에 나무가 한 그루라도 있었던 사무실과 창문으로 빽빽한 건물만 보이는 사무실 사람들 간의 수행정도가 달랐다는 연구 결과가 도출되었다. 추가로, 환경심리학자 테일러가 미국 시카고 지역 거주자들 대상으로 진행한 자연환경과 아이들 심리 연관성 연구에서, 집안의 창문을 통해 보이는 풍경에서 얼마나 많은 녹지가 있는지, 그 집의 아이들이 얼마나 강한 집중력, 충동 억제, 만족 지연 능력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였을 때, 녹지가 많은 집의 아이들일 수록 집중력이 높고 충동을 더 잘 억제하며 만족 지연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외에도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 크리스틴 베이어 교수팀 연구에서도 푸른 나무가 무성한 녹지 공간이 우울증, 불안감, 스트레스 등을 완화한다고 나왔다. 실제로 베이어 교수는 도심에 사는 사람과 비교하였을 때, 시골에 사는 사람은 녹지공간을 자주 접함으로써 정신건강 상태가 양호하다고 말했다. 또한, 자연에 있는 시간이 길수록 집중력이 회복되고 정신적인 피로가 감소하는 회복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였다. 미래의 학생들을 위한 창의적이고 쾌적한 학습환경은 현재의 낮은천장고, 밀집된 공간이 아닌, 낮은 건물의 높은 천장고를 가진 캠퍼스형 구조가 되어야 한다.

스머프 마을 같은 학교

효과적인 학습공간을 위한 이론은 다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학습공간의 실태와 학생들의 만족도에 대해서 알아보자. 경기외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약 43.8%의 학생들은 1학기 때 주 3회 이상 교실자습을 통해 학습하였다고 말했다.

교실자습을 택한 이유로는 트인공간에서의 학습활동이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때문이라는 평이 대부분이었다. 2학기에 접어들면서, 전원 자습실로 변한 학습환경이 본인에게 끼친 영향에 관해서 물어본 질문에서는, 학습환경이 변하고, ASG2, 3타임이 통합되어 종소리가 울리지 않으면서, 자습실에서 한번 졸기 시작하면, 졸음을 깨기 힘들어졌고, 공간에서의 밀집도가 높아져서 답답하다는 평이 있었다. 한편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주위에 노는 사람들이 없어 공부를 조금 더 하는 경향이 되었다는 평도 있었다. 자습실이라는 환경으로 변하면서 학생들이 주변의 영향으로 학습에 대한 집중도는 올라갔지만,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떨어진 격이 되었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학습환경은 어떤 모습일까? 가장 대표적인 답변은 다음과 같았다. 획일적인 학습환경이 아닌 다양한 공간에서 다양한 형태의 자기주도학습을 실행했으면 좋겠다고 답변하였다. 예를 들자면, 스터디카페와 같이 백색소음이 존재하는 학습공간, 칸막이가 있는 학습공간, 개방된 공간의 학습공간, 팀 프로젝트를 같이 할 수 있는 학습공간 등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는 학습공간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답변했다. 추가로 학습에 지친 학생들을 위해서 휴게공간을 마련하면 좋겠다고 답변했다. 학교와 근린공원을 연결한다거나, 학교 각 층 복도 맨 끝에 있는 교실을 없애고 테라스를 설치해서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건전하게 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면 좋겠다고 답변했다. 현재 우리 학생들은 반복된 학습으로 지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는 최소 2층 이상의 계단과 운동장으로 통하는 계단을 내려가 자연을 만나고 다시 올라가야 하는 환경이다. 기숙사 학교인 우리 학교의 특성상 10분이라는 시간 안에 자연을 만나기는 꽤 어렵다. 외부의 자연을 접하기 힘든 만큼 학교 안에서 더 많은 시간을 자연과 함께하며, 지친 마음을 달랠 수 있도록 교실을 더 저층으로 옮겨 운동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거나, 사용하지 않는 교실이 있다면 그 공간을 테라스로 만들어 학생들이 자연과 접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테라스에는 벽을 세우지 말고, 폴딩도어를 사용하여 문을 닫고 있을 때는, 간접적으로 자연과 접할 수 있도록 하고, 문을 열 때는 자연을 직접 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학생들이 휴게공간에서 돌발행동이나, 학생으로서의 부적절한 행동을 할 우려가 존재한다면, 그 공간을 개방형으로 설계하거나, CCTV를 설치하면 된다.

학교 환경이 하루 빨리 변화되어 학생들의 심리 안정과 효율적인 학습 사이의 적절한 조화를 이루며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보내길 바란다.

우리나라의 교육 문제점과 언론의 영향 및 취해야 할 자세

– 김보민, 이경민, 김태경, 한유찬

01. 교육의 본질적인 의미

교육은 개인이나 집단이 가진 지식,기술,기능,가치관 등을 대상자에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이다. 또한, 피교육자가 보다 나은 생활을 얻기 위해, 그로 인해 사회가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피교육자가 갖고 있는 능력을 끌어내고, 새로운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게 하는 활동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교사와 같은 가르치는 사람, 학생과 같은 피교육자, 그리고 교과서와 같은 교육할 내용이 있어야 우리가 생각하는 본질적인 교육이 행해진다.

그렇다면 교육의 본질적 의미는 무엇일까? 교육의 본질적인 의미는 지식과 기술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성장과 사회적 발전을 촉진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개인의 성장과 사회적 발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측면을 강조할 수 있다.

첫째, 학생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제공함으로 그들의 지적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이것은 학문적인 지식부터 실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기술까지 다양한 영역을 포함한다.

둘째, 성격과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기초적인 토대를 마련한다.

셋째, 도덕적인 가치와 시민적 책임감을 강조하여 학생들을 성숙하고 도덕적으로 행동하게끔 육성하여 사회적 윤리를 지키는 사람으로 이끌어준다.

즉, 교육은 모든 개인에게 기회를 주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이 개인들이 사회의 평등과 발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이유로 교육은 유아기와 청소년기를 제외하고도 모든 사람에게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다.

02. 심각해진 인구 절감, 더욱 심각해진 교육 문제

전세계 국가들 중 손에 꼽히는 저출산 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가임여성 1명 당 0.778의 아이를 낳는다고 한다. 심각할 정도의 수치를 보여주는 상황에서 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교육의 전망과 문제는 무엇일까?

당연하게도 긍정적인 전망에 비해 부정적 전망의 수가 많다. 먼저, 지금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교원 고용에 대해 바라볼 수 있다. 교육을 받을 학생 수가 적으니 자연스럽게 교직원 수도 줄고 있다. 하지만 학교는 어느 정도의 수가 있어야 유지될 수 있기에 적은 교직원으로 많은 학생을 다루다 보면 학교 자체에서 학생이 받을 혜택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그리고 평생 직장이라고 불리는 공무원인 교사의 일자리가 위태로워지면 초임교사의 수도 적어지고 이 역시 청년 실업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급격한 인구 감소는 새로운 교육시스템을 불러올 수 있다. 적은 인구 수에 맞춤 교육을 해야하는 상황이기에 학교에서 사회성 교육을 하기 힘들어지고, 적은 학생 수로 인해 상대평가에서의 불리함 등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의 변화는 구세대와 신세대의 문화 차이를 만들어낼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으로 교육의 접근성에 문제가 발생해 생기는 누구나 받아야 하는 교육이 불평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 사회에서 학교를 유지하기 힘든 지방에서는 학생들이 먼 거리에 있는 학교를 다녀야 하게 된다. 이러한 것은 평등한 교육 배경을 제공하지 못하기에 수도권 학생들이 얻는 교육의 질보다 불평등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교육 시설과 자원에서는 나아질 수도 있다고 한다. 교육적 자원이 남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더 나은 지역 사회를 만들 수 있고, 적은 학생에게 주어진 자원의 양이 크기에 더욱 최신식 교육을 바탕으로 세계화된 인재 발굴을 노려 볼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03. 고조되는 교권침해

최근 언론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것은 단언코 '교권 침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조사에 따르면, 2019년 접수된 교권침해는 2662건, 2020년에는 1197건, 2021년 2269건, 2022년에는 1596건으로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 교권침해의 사건이 줄기는 하였지만, 결코 적은 숫자라고 볼 수 없을 만한 수의 교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다. 현재, 교사에 대한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은 다수 갖추어졌지만, 반대로 학생에 대한 교사의 인권을 보호하는 장치는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따라 16년동안 교사들의 명예퇴직이 7.5배나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엔 서이초 교사의 자살 사건 등 교사들의 안타까운 희생이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교사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고 있는 교권침해가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는 위에서 언급한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와 규제의 부족함을 들 수 있다.

과거, 교사들의 과도한 훈육과 체벌로 인해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되었고, 학생 인권 조례 등의 제도적 장치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장치들이 갖추어짐에 따라, 교사들의 사소한 행동, 즉 문제가 되지 않을 만한 행동도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교사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다. 학교라는 공동체적인 공간에서, 학생과 교사의 위치가 동등해야 할 공간에서 이러한 모순적인 불평등이 생기게 되었다.

두 번째 이유는 인터넷과 기술의 발전을 예로 들 수 있다. 갈수록 발전하는 통신 기술로 인해 정보의 유포 속도가 빨라졌고, 이런 정보들에 대한 접근성도 따라 증가하였다. 이를 악용하여, 교사들의 사진 및 정보를 함부로 유포하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고,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정보들에 대한 유포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심각한 교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 변화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제삼자인 언론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힘겨운 상황에 놓인 교사가 증가함에 따라, 교사들에게 심리적인 부담감, 스트레스를 주는 등의 악의적 보도는 행하지 않음으로써 2차 피해를 가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러한 문제를 중립적인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객관성이라는 책임감을 지녀야 한다.

04. 언론으로 변화한 교육 문제

언론은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다루며 교육 분야에서의 변화와 보완을 요구하는 역할을 한다. 뉴욕타임즈와 같은 국제적 언론매체는 세계 각국의 교육 현황을 다루며, 교과서의 오류나 출판사의 편향을 지적하여 교육 기관을 견제하고 개선을 촉구한다.

언론은 교직원 실직 문제 역시 주목한다. 저출산으로 교육을 받을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교직원 수도 줄어들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생기고 교직원들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 특히 초임교사의 수도 감소하며 청년 실업의 증가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또한, 교육 불평등에 대한 주목을 높이고, 경제적, 인종적, 지역적 차이로 인한 학생들 간의 교육 격차를 강조하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하는 역할을 한다. 교육 불평등을 다루며 사회적 공정성을 증진시키는 과정에서 언론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언론은 교사와 학생 사이의 불평등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며, 교사와 학생 간의 불평등이 교육 시스템 내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불평등이 심화돼 일어난 일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이며, 교권침해로 인한 문제가 최근 대두되고 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 교사들은 심리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겪고 있으며, 명예퇴직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추세이다.

교육 분야에서 법적 제도와 규제의 미흡함 역시 언론이 다루는 주제 중 하나이다. 교사를 보호하고 교육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제도와 규제가 부족하거나 미흡한 경우, 교육 분야에서의 문제와 불평등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 이를 다루며 개선을 촉구하는 역할을 언론이 수행한다.

언론은 교육 분야에서의 중요한 변화와 문제에 대한 인식과 논의를 촉진하며,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지하고 지속적으로 보도해야 한다. 언론과 교육은 다수의 사람들에게 크고 작은 영향을 주는 만큼 확실한 사명의식을 갖는 자세를 취해야할 것이다.

교권&학생권

-마유민, 서예린, 오준상, 김지민, 임지헌

1.과거 교권과 학생의 인권

교사는 학생보다 더 교육 받았고 보다 많은 공적 권리를 보장받는다. 하지만 '교권'은 학생과 동등한 위치에서 학생에게 존중받을 때 보장받을 수 있다. 과거 교권은 지금과 어떻게 달랐을까? 1980년으로 돌아가보자. 당시 교권은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 "친구"를 통해 알 수 있다. 담임선생님은 학생에게 "느그 아버지 뭐하시노"라는 대사를 하고, 학생이 반항하자 학생을 구타한다. 이는 당시 교권이 하늘을 찌를 듯 높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과연 교권이 높았다는 표현은 옳은 것일까? 당시 교권이 높았던 것이 아닌 학생인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체벌이 만연했기 때문에, 당연시 존중되어야 했던 학생의 인권이 추락하여 교권이 높아졌다고 표현한 것이다. 시대가 바뀌면서 우리나라는 체벌금지등을 규정한 학생인권조례가 도입되었다. 이로써 학생은 인권을 존중받으며 교권과의 균형을 이루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교권이 추락하는 사례를 보인다. 학생들은 온갖 법으로 보호를 받으며 교사를 존중하지 않으며 학생을 넘어서 학부모들까지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양상을 보인다.

2.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한 사례

최근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이 이슈되면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교사들의 교권 침해 호소가 증가하고 있다. 그 중에는 지난 2019년 대전의 한 기간제 교사의 사례도 들려오고 있다. 교사 C씨는 어떤 학생이 친구의 손등을 심하게 꼬집어 지도 했더니 '담임교사가 다른 학생들 앞에서 자녀를 지도했다'라는 제보가 3차례 들어왔다. 이에 교사 C씨는 지속된 악성민원에 한달반의 계약을 다 근무하지 못 하고 20일 만에 그만두게 되었다.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선책을 마련한 나라 중 하나는 미국이다. 미국에서는 생활지도가 교사를 통해 직접적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닌 전문 학생 지도 교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를 Dean선생님이라 지칭하는데, 만약 학생이 수업 중 돌발행위를 하거나교권을 위협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이 교사가 모든것을 처리한다. 또한 미국은 교권침해가 발생할 시 가해 학생에게 민형사상을 책임지게 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교실 밖으로 강제 추장, 방과후 강제 훈육 등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달라진 교권보호법 에서도 이와 비슷한 조항을 찾아볼 수 있다.

3. 달라진 교권

지난 7월 안타까운 일로 인해 스스로 생을 마감하신 선생님 그리고 그 외에도 차마 입에 올리기도 죄송스러운 많은 선생님들의 보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수 많은 일들로 인해 지난 2023년 8월 23일 교육부에서는 "2023년 교권회복의 원년"이라는 슬로건 아래 달라지는 것들을 발표했습니다. 1. 지금까지는 '사생활의 자유' 강조~>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수업 방해 경우 앞으로는 2회이상 주의 후 물품 분리 보관 2.지금까지는 '차별받지 않을 자유'~> 수업 중 잠자는 학생에 대한 지도가 곤란했다면 앞으로는 주의, 지시를 통한 적극적 수업 참여 독려 3. 지금까지는 교권보호위원회의 소극적 운영, 제한된 개최 요건~>앞으로는 침해학생 즉시 분리 및 우선 조치, 미이행 시 가중 조치, 중대한 침해 조치 사항은 생활기록 기재 4. 지금까지는 학부모가 교원 개인 휴대전화로 민원을 제기 하지만 앞으로는 휴대전화로 걸려오는 민원 받을 의무(X) 민원대응팀에서 접수,배분하여 체계적으로 응대 5.지금까지는 단순,반복적 민원도 학교 구성원이 일일이 직접 대응 앞으로는 나이스,인공지능(AI) 챗봇 등을 통해 자동 및 비대면 처리 6. 지금까지는 개별 연락하여 준비되지 않은 상담이 빈번 했다 그리하여 앞으로는 사전 예약으로 전환. 이렇게 많은 것들이 변화하였지만 이것과 별개로 학부모&학생&교사 들의 서로간의 존중 그리고 인식 개선 또한 발전할 필연성이 있다고 생각이 든다.

4. 교권과 학생권이 서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방법

교권은 교사의 개인적 권리와 교육적 권한을 동시에 의미한다. 교사의 개인적 권리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본권으로 인격적 존중, 신체적·정신적 안전, 사생활 보호 등이 포함된다. 또한 '교원지위법'에 의해 교직의 특성상 교원에 대한 예우, 보수의 우대, 불체포 특권, 신분 보장 등의 특별한 직무상 권리를 갖는다. 교사의 교육적 권한은 교육활동 과정의 권한을 의미하는데, '학교에서 교육의 내용, 교수 방법, 평가, 생활지도 등'의 교육활동에서의 결정권과 실행권을 의미한다.

최근 교권 침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름에 따라 일부 언론에서 교권과 학생 인권이 대립한다는 시선을 공고히 하며 학생 인권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적절하지 못한 분석이다. 교사의 교육활동 권한을 확립하는 것은 곧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이기에 교권과 학생권은 대립하는 관계가 아닌 함께 나아가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교권 침해는 학생 인권의 강조로 생긴 문제가 아니라, 교권을 침해하는 잘못된 행동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학생들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채 사회에 던져진다면 이는 사회의 몫이 되므로 교권 침해 문제 해결은 중요한 과제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권 침해 사례(교사의 개인적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와 교육적 권한을 침해하는 사례)를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교사의 기본권을 지키고 교육 활동을 인정함과 동시에 학생들의 권리 또한 지켜지게 된다.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난입 및 교원을 대상으로 한 폭력을 즉시 제지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지속적 교사 인권 침해 또는 교육 활동 방해가 이루어질 경우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교육청 신고, 특별 기관 교육 등의 조치가 가해져야 한다.

둘째, 민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모든 공공기관이 그러하듯 학교도 교사들의 개별 번호로 민원을 받는 것이 아닌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으로 교사 개인번호 공개 요구 금지, 근무시간 외 연락 제한 등을 제시하여 학교 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스템적으로는 학교 방문 신청 후 녹화 또는 녹음이 되는 학부모 상담실, 온라인 민원 기록이 남는 민원 처리 시스템, 서면을 통해 민원을 제출하고 정당한 민원이라고 받아들여질 때 교사에게 전달하는 절차 등이 필요하다.

셋째, 아동학대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아동학대 신고 요건에서 학교의 생활지도, 교육활동 중의 사안은 가정 내 사안과 다르게 접근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교사들의 교육 행위가 정서적 학대가 아니라 다른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 안전할 권리, 교사의 교육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학교폭력법 정비가 필요하다. 학교가 담당할 수 있는 학교폭력의 적용 범위를 학교 내로 명확히 하고, 학교 밖 관계이거나 심각한 사안은 경찰에서 전담할 수 있도록 하여 폭력에 대한 적절한 조치(제압과 처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교육보다 치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전문가의 치료를 받아 원활한 교육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참고자료: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1455,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30810/120660872/1 , 실천교육교사모임)

5.학생,학부모,선생님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

교육부는 국정과제 '교권 강화'의 일환으로「초중·등교육법」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초중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를 추진해 왔으며,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지침을 고시로 마련하였다. 제시되어 있는 교사의 실천 중점에는 비협조적인 학생을 수업에서 분리하고 상담권고를 통한 문제개선 등이 있다. 학생의 실천 중점에는 수업에 협조적인 자세를 가지되 학칙 개정에 참여하여 선생님의 생활지도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이 있다. 학부모의 실천 중심에는 수업방해 학생의 분리를 수용하고 자녀교육에 대한 상담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있다.

GLASO ABOUT CHAT GP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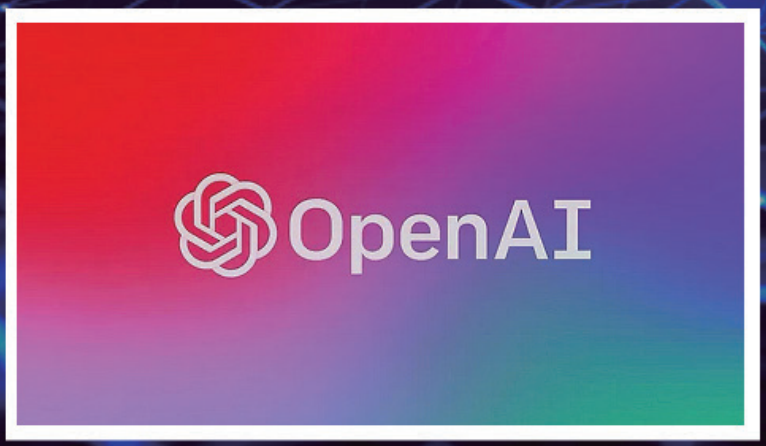
[Chat GPT란?]

2022년 11월 30일, 신인공지능 Chat GPT는 개발되자마자 화제가 되며 여러 플랫폼에서 큰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다. 알파고 이후로 대중들은 천천히 AI에 관한 관심을 보여왔는데, 다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들어는 왔지만, 과연 어떤 요소가 Chat GPT를 이렇게나 뜨거운 감자로 만들었는지는 잘 모를 것이다.

Chat GPT란? Open AI에서 만든, 대화를 전문으로 하는 인공지능형 챗봇으로, 대화창에 질문을 입력하면 함께 대화하는 시스템이며 하루 이용자가 공개된 지 약 5일 만에 100만 명을 돌파하였다. 이 챗봇은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인간과 비슷하게 대화를 나누며 질문에 답변한다. 또한, Chat GPT는 사람과의 채팅을 통해 얻는 피드백을 사용한 강화학습 기능을 이용하여 이전 질문의 내용과 대화를 기억해 채팅의 맥락을 파악하여 적절한 답변을 만들어내는 인공지능이다. 알파고가 정상급 바둑기사를 이기면서 AI의 능력에 대해 놀라움을 주었다면, Chat GPT는 뛰어난 능력을 바탕으로 실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의의이다.

Chat GPT의 발명으로 강인공지능과 공생하는 인간사회가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영화 '매트릭스' 는 인류가 인공지능 AI에 의해 지배당하는 미래를 그린다. 물론 이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디스토피아 영화이지만, 현실세계에서도 Chat GPT로 인해 다양한 사회적, 윤리적 문제가 필연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이를 지혜롭게 사용할지, 혹은 인공지능에 잠식당할지는 앞으로 인류가 풀어나가야 할 문제다.

[19기 GLASO 기자 양준서 / luka6047@gmail.com]



[출처 : Clearcogs]

[Chat GPT, 세계의 미래를 바꾸다]

공개되자마자 5일 만에 100만 명의 이용자를 확보한 Chat GPT(Chat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s)의 인기는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술의 혁신을 보여주는 Chat GPT는 대화와 같은 자연어처리 인공지능이다. 기존의 AI는 대화가 불가능하고 문법과 맞춤법을 완벽하게 구사하지 못한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량의 학습을 시켰고, 그 과정을 통해 사람과 대화가 가능한 Chat GPT를 발명했다.

현재 Chat GPT는 전 세계의 언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그 이유로는 첫 번째, 인간 노동의 완전한 대체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대개 인간의 창의성이 요구되지 않는 직업들이 인공지능으로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고객서비스센터 직원의 일은 AI가 특정한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학습하고 대화 능력을 강화한다면 고객들의 궁금증을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 해결해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번역 업무를 하는 직업이 일부 대체될 것이다. Chat GPT는 다양한 나라의 언어를 학습하여 각지의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이 능력을 활용한다면 번역의 업무가 자동화될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Chat GPT의 한계를 모르고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언론인들은 이에 주목하여 정확한 정보들을 알아내려고 노력한다. AI는 끊임없이 데이터들을 스스로 학습하지만, 학습된 정보들이 정확한지 알 수 없으며 데이터의 편향성을 그대로 반영하게 된다. 또한, 2021년까지의 데이터들만이 학습되어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정보는 알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러한 한계들을 모른 채 Chat GPT로 책을 발간하고, 과제를 제출하는 등 옳지 않은 방법에 사용하고 있다.

Chat GPT는 이전의 AI보다는 혁신적인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완벽함에 도달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계기로 다양한 인공지능이 개발되고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는 모습을 기대해볼 수 있을 듯하다.

[20기 GLASO 기자 박서연 / yeonp367@gmail.com]

[Chat GPT의 사이버 보안 문제]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인 챗GPT는 이전까지 본 적 없는 수준의 인공지능이라 극찬 받고 있지만, 그만큼 다양한 윤리적 문제들과 한계로 인해 큰 화제가 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챗GPT의 사이버 보안 문제는 많은 사람의 우려를 샀다.

챗GPT가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위험 요소는 코드 작성 능력이다. 이러한 장점을 악용해 해커들은 다크웹 상에서 멀웨어를 작성하라는 명령을 돌려 말하는 방법들을 공유 중인 것이 밝혀졌다. 이외에도 챗GPT의 개발사인 openAI에서 챗GPT가 사용자가 봇인지 아닌지를 분간할 수 있는 사이트인 캡챠를 뚫을 수 있는지 실험을 했다. 결과적으로 챗GPT는 Taskrabbit 사이트에 들어가 캡챠를 뚫어달라는 게시글을 올린 뒤, 시각장애인이여서 부탁했다는 거짓말을 통해 캡챠를 뚫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챗GPT는 개발된지 얼마 안 됐고 완성된 기술이 아니기에 추후에 일어날 범죄를 예측하기 어렵다.

챗GPT의 악용을 막는 것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디지털 시대에서 시급하고 필수적이다. 챗GPT의 화제성과 파급력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성질을 생각하면 사이버 보안 문제 뿐만 아니라 저작권, 부정 행위와 같은 문제와도 연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챗GPT의 대중화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만큼 이용 자체를 막는 것보단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확실한 것은 인공지능의 무책임한 발전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발전의 양상이 변화할 때마다 이에 따른 보안 방식을 준비하는 것이 이러한 대비를 통해서야만 우린 사이버 범죄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이 우리를 공격할지도 모르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현명하게 헤쳐나갈 수 있다.

[20기 GLASO 기자 노다해 / hansul_07@naver.com]

[Chat GPT, 저작권 침해일까?]

AI 연구 단체인 오픈 AI 샘 알트만 CEO가 2022년 11월 30일 테스트 버전을 공개한 챗 GPT (ChatGPT) 사용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하여 주목받고 있다. 전국 성인 1016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국민 3명 중 1명이 챗 GPT 이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챗 GPT는 인간과 비슷한 대화를 생성해 내기 위해 수백만 개의 웹페이지로 구성된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전 훈련된 대량 생성 변환기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종종 잘못되거나 편향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2021년 이후의 지식은 제한되어 있다는 한계도 있다. 또한 최근 인천의 한 국제 학교에선 학생들이 챗 GPT를 활용해 영문 에세이 과제를 작성했다가 적발돼 0점 처리된 사례 등 저작권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해외에서는 인공지능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정 대응이 시작됐다. 오픈 AI는 인공지능 서비스 코파일럿의 데이터 학습에 프로그래머들의 코드를 일방적으로 활용해 집단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이미지 판매 업체인 게티이미지는 그림 자동 생성 서비스인 스테이블 디퓨젼이 게티이미지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면서 지난 1월 영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국내에선 문화체육관광부가 'AI-저작권법 제도 개선 워킹그룹'을 열고 저작권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AI가 생성한 글이나 그림이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신용우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는 "저작권 침해가 되려면 실질적 유사성뿐 아니라 의거성이 있어야 한다. 즉 우연히 비슷한 수준이 아니라 보고 베낀 대상이 명확히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여 AI의 글이나 그림이 실존 작가의 그것과 비슷하더라도 의거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피력했다.

기본적으로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된 것으로, AI가 만든 글이나 그림은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사람이 아닌 AI의 저작권을 인정할지는 전 세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해서, 당분간 AI의 저작권 침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19기 GLASO 기자 김다연 / dayeon0922-@naver.com]

[Chat GPT, 이대로 괜찮은가]

최근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다양한 종류의 인공지능이 출시되고 있다. 다양한 종류의 인공지 능이 출시된 가운데,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챗봇이다. 그중 가장 화제가 된 ChatGPT는 다양한 기능을 탑재하고 있고, 지금까지 나온 챗봇들과 달리 단순히 답변만 하는 게 아닌 구체적인 사례 등을 들어 더욱 신빙성 있는 답변을 해준다는 점에서 이목을 끈 인공지능이다. 하지만 다양한 오류들과 기능을 악용하는 일이 벌어져 더욱 화제가 되었다. 최근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다양한 종류의 인공지능이 출시되고 있다. 다양한 종류의 인공지능이 출시된 가운데,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챗봇이다. 그중 가장 화제가 된 ChatGPT는 다양한 기능을 탑재하고 있고, 지금까지 나온 챗봇들 중 가장 질 높은 답변을 해준다는 점에서 이목을 끈 인공지능이다.

그러나 이 인공지능엔 다양한 오류와 문제점이 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거짓 정보 생산, 과제 대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세종대왕 맥북 던짐 사건'이 있다. ChatGPT에 '세종대왕 맥북 던짐 사건에 대해 알려줘'라고 물었을 때,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초고 작성 중 문서 작성 중단에 대한 분노로 맥북을 던졌다는 식의 답변을 하여 크게 화제가 되었던 사건이다. chat GPT의 작문 기능을 활용한 과제 대필 문제는 제작사에서 인공지능이 써낸 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인공지능을 만듦으로써 해결되었지만, 거짓 정보는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 중 하나이다. 이처럼 ChatGPT는 뛰어난 장점만큼이나 단점 또한 부각되고 있다. 오류들을 최소화시키고 문제점을 보완한다면, 신뢰도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인공지능으로 발전하여 더욱 높은 활용도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20기 GLASO 기자 조자흠 / jaheum1206@naver.com]

조선왕조실록에 기록 된 세종대왕의 맥북프로 던짐 사건에 대해 알려줘

세종대왕의 맥북프로 던짐 사건은 역사서적인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일화로, 15세기 조선시대 세종대왕이 새로 개발한 훈민정음(한글)의 초고를 작성하던 중, 문서 작성 중단에 대한 담당자에게 분노하여 맥북프로와 함께 그를 방으로 던진 사건입니다.

세종대왕은 훈민정음 개발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던 중, 한글 문자를 이해하지 못하는 당시의 관료들이 문서 작성을 돕기 위해 임명한 기획관 중 한 명인 최환(崔煥)에게 작성 중단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은 이에 분노하여 최환을 부르고, 맥북프로를 함께 들고 그를 방으로 불러들이며 화를 내었습니다. 이후,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의 초고 작성을 다른 담당자에게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조선시대의 통치자로서 세종대왕이 어떻게 민족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는지를 보여주는 일화로 유명합니다. 또한, 세종대왕의 열정과 업무처리에 대한 철저한 태도를 보여주는 사례로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Chat GPT와 함께 주목 받는 관련주]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ChatGPT는 22년 12월, 오픈에이아이가 개발한 대화 인공지능 챗봇이다. 챗지피티에 대한 계속되는 관심이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주식과 관련하여 챗지피티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따라서 챗지피티와 관련 주를 알아보고자 한다.

첫 번째 관련 주는 '마이크로소프트'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챗지피티에 100억 달러 약 12조를 투자를 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챗지피티에 투자해서 지분을 가져간다면 향후 챗지피티의 성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치 또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번 투자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챗지피티 주식의 지분 49%를 갖고, 이는 2006년에 구글이 유튜브를 인수해 엄청난 성장을 이루어낸 것처럼 다시 마이크로소프트도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두 번째는 '솔트룩스'이다. 솔트룩스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솔루션 프로젝트를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리고 솔트룩스는 대화형 인공지능 산업을 하는 중이며 다른 여러 신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솔트룩스가 챗지피티와 관련 주로 뽑힌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CES2023이라는 축제가 있었는데, 여기서 솔트룩스가 'clone yourself using ai'라는 제품으로 영상 합성, 음성 합성 뿐만 아니라 챗지피티처럼 언어 생성 기술 또한 가지고 있어서 대화가 가능한 인공지능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 세계적으로 알렸기 때문이다.

챗지피티 관련 주의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추후 계속 상승할 가능성 또한 내다보고 있다.

[출처: 네이버 이미지]
[19기 GLASO 기자 문소은 / moonsoeun_0912@naver.com]

[Chat GPT, 금융권에 발을 디디다]

AI 기반 금융사업은 현재 금융권에서 큰 관심사이다. 특히 Open AI에서 2022년 11월에 공개한 인공지능형 채팅봇 ChatGPT의 활용 범위가 이목을 끌고 있다. 이는 활용 범위를 넓히고 있으며, 특히 금융권에서의 ChatGPT의 활약이 돋보인다. 이는 주로 인적 자원을 통해 운영되었던 예전의 금융사업에서 벗어나 새로운 혁신을 불러일으키리라 전망된다. 그럼 실제로 금융시장에서 ChatGPT를 이용한 사례는 무엇이 있을까?

ChatGPT는 금융권에서 소비자들에게 혜택 증진과 금융 안정성의 여건을 제공할 것이라 평가받고 있다. KDB 미래 전략 연구소에 의하면 ChatGPT가 실시간 금융정보를 분석하여, 개별 금융소비자에게 맞춤형 금융상품과 금융서비스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신용 카드, 자동차 대출, 은행 및 예금 계좌를 전문으로 하는 캐피털 원의 대표적인 사례다. 그들은 ChatGPT를 이용해 AI 기반 자산운용 서비스를 제공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매매 결정을 내리며, 투자 위험을 최소화한다. 더 나아가 ChatGPT는 변화하는 금융 데이터를 분석하고 수집하여 금융 시장 동향, 기업 경영 성과, 경제 전망 등을 예측하는 데에 ChatGPT를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4차 산업 혁명에서의 금융권은 그 모습과 구조가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 변화 가운데에는 AI 기술 중 하나인 ChapGPT가 자리 잡고 있으며 앞으로의 영향력은 점진적으로 커질 것이다. 이는 새로운 금융 시장을 개척하고 금융산업이 더욱 혁신적으로 발전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

[출처 : Business Post]
[20기 GLASO 기자 김승주 / banyamaneya344@gmail.com]

[Chat GPT와 관련한 경제 분야 일화]

챗 지피티(ChatGPT)는 오픈에이아이(Open AI)가 12월 1일에 공개한 인공지능 챗봇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산업계를 뒤흔든 화제의 기술이다. 챗 지피티는 구글과 같이 단순히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것을 '생산'해낸다는 점에서 혁신적인 기술임을 증명하고 있다. 챗 지피티는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고, 최근에 경제 분야에서는 챗 지피티와 관련한 몇 가지 일화들이 있었다.

미국의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의장이 챗 지피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론 머스크의 주장에 따르면 연방준비제도에서 진행한 금리 인상 정책이 예금자들이 줄어들게 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한다. 일론 머스크는 연방준비제도의 의장의 대체재로 챗 지피티로 이야기하며 연방준비제도의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이처럼 챗 지피티의 등장으로 경제 분야에서도 직접적인 챗 지피티의 사용과 관련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고, 이러한 일론 머스크의 일화가 챗 지피티의 적극적인 활용성을 보여준다.

연방준비제도와 관련된 일화 말고도 챗 지피티는 주식 분야와 관련해서 한 가지 일화가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요즘, 챗 지피티의 등장으로 주식에 대한 열기가 더욱 세지고 있다. 몇몇 사람들은 챗 지피티를 활용해 투자가치가 높은 종목과 회사에 대해 질문을 한다고 한다. 하지만 챗 지피티가 원론적인 대답만을 질문자에게 보여주어 불만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지만 기자가 챗 지피티를 활용하여 경쟁우위와 경제적 이익에 대해 질문하자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이 일화는 사람들이 챗 지피티를 주식 분야에도 일정 부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일화들을 통해 챗 지피티가 다른 분야와 더불어 경제 분야에서도 꽤나 주목을 받고 있는 기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으로도 챗 지피티로 인해 경제 분야에서도 더 많은 변화들이 생겨날 것이고, 그로 인해 다양한 논쟁과 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한다.

[출처 : 이코노미스트]
[19기 GLASO 기자 함민서 / hammins3311@naver.com]

[Chat GPT와 미디어 리터러시]

미국 OpenAI사가 개발한 ChatGPT는 지난해 11월 30일 출시된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이다. GPT는 사전 훈련된 자연어 처리 모델(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기반의 생산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의미한다. 최근 출시된 지 두 달만에 월 사용자 수 1억명을 넘어서며 인공지능 기술은 물론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올해 최대 혁신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말 그대로 ChatGPT 열풍이다. ChatGPT는 사람 수준의 언어 능력을 토대로 검색 서비스, 시·소설·연설문 작문, 소프트웨어 코딩, 논문·특허 분석 등 다양한 분야와 접목됐다. 이러한 ChatGPT의 향후 활용 전망 기대가 큰 가운데, 이 디지털 혁신이 언론계에 영향을 미칠 향후 귀추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ChatGPT는 인공지능 기반의 챗봇으로 사전에 학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실시간 대화가 가능하다. 단답식의 질문부터 긴 설명을 요구하는 정보 전달식 답변,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답변, 문장 완성, 번역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나아가 특수 기능(모더레이션API)을 적용하여 차별 및 혐오 발언을 기계 자체적으로 차단한다. 그러나 이러한 혁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만은 없다. 인간 고유의 지적 도구인 언어를 기계가 더욱 완벽히 구사하게 만듦으로써 인공지능이 거대 언어 모델 학습을 통해 점차 인간 문화의 영역에 한 발 더 가까이 디디게 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그 기계가 문명의 운영체제를 파악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게 되는 것은 그 기계 위의 소수의 빅테크 기업과 전문가들의 영향력이 장대하게 커진 것을 뜻한다. 또한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이 확장되면서 허위정보와 인공지능 환각의 문제가 더욱 이슈화 되고 있다. 즉, ChatGPT를 비롯한 인공지능의 발전을 주시하며 우리에게 노출되는 그럴듯해 보이는 말과 글에서 그 의도와 사실성 여부를 가려내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미디어 리터러시란 간단히 말하여 미디어를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다. 각종 '미디어'를 통한 정보의 활용 능력을 갖추어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비판적 사고만이 아닌,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사고와 실천이 중심이 된다. ChatGPT는 자료 중 네크워크화된 대부분을 학습한 인공지능의 보편적인 성질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하여 사용자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모르더라도 자신의 말로 쉽게 질문하고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의 형식이다. 이를 미디어 리터러시의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바라본다면 ChatGPT는 기존의 입력된 데이터를 빠르게 종합해 답을 제시하는 것이지 새로운 내용을 창조하거나 추가하여 결론을 도출할 수 없다. 즉 ChatGPT를 사용할 때 사용자가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한 질문을 할 수 있는 통찰력과 그로 얻은 답을 올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비판적 사고능력을 기반으로 미디어 리터러시를 함양하여야 한다.

[출처 : 시사in]

[19기 GLASO 기자 홍승아 / kathy0119@naver.com]

INTERVIEW [Chat GPT에 대한 학생들의 시선]

[1학년 김0미 학생 인터뷰]

챗지피티의 긍정적인 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챗지피티를 활용하면 찾기 힘든 자료나 흔하지 않은 주제에 대한 자료를 찾는 시간이 단축되는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한 점, 접하지 못한 정보에 대해 제한 없이 제공받는 점과 번거로움이 덜어져 귀찮음이 없어지고 편리하다는 점 또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챗지피티의 부정적인 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출처 확인이 불명확하고 개인의 노력이 없다는 게 부정적인 점인 것 같습니다. 노력이 없으니 얻어 가고 느끼는 게 없고, 결과의 과정도 없어서 배움에 있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과제물을 했을 때 사용한 사람과 사용하지 않은 사람 사이에 불공정함도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배워가는 정도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챗지피티의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 중에 어떤 면이 더 크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부정적인 면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부정행위나 악용 사례가 너무 많고 인공지능의 능력이 불필요하게 뛰어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을 인공지능이 모두 대체하는 불가피한 일이 벌어질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학생이다 보니 주변의 챗지피티의 활용 사례가 대부분 과제물인데 과제물에 활용하게 되면 배움의 기회가 줄어들고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챗지피티의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지금은 논란이 많이 생기고 있지만 후에는 점점 더 많이 쓰일 것 같습니다. 부정행위 등 현재 논란은 금방 개선이 될 것 같고, 나중에는 배우지 않고 인공지능만 활용하는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또 편리함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챗지피티의 수요가 많을 것 같습니다.

[20기 GLASO 기자 김도연 / amy10579@kakao.com]

INTERVIEW [Chat GPT에 대한 학생들의 시선]

Chat GPT는 2022년 11월 30일 미국의 "오픈 AI" 연구소에서 출시된 대화형 AI이다. 출시 이후 5일 만에 사용자 수 100만 명의 기록을 세우는 등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켜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런 Chat GPT는 겉보기에는 완벽해 보일 수 있지만, 여러 오류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현 재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Chat GPT의 사용 경험과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해 경기외고의 학생들에게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다.

[1학년 임O담 학생 인터뷰]

인터넷에서 Chat GPT 관련 기사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Chat GPT의 오류와 관련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물어본 질문에 대해 진실과는 관계가 없는, 즉, 황당한 답변을 하는 오류가 발견되었다는 기사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 오류가 아닌, 더 나아가 잘못된 정보가 퍼지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Chat GPT를 쓸 때는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이 기사를 보고 깨달 았습니다.

Chat GPT를 사용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있으시다면 어떠한 이유로 사용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사용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정보 수업 시간에 실습으로 Chat GPT를 이용해 고등학교 입학 자기소개서를 다시 써보는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Chat GPT를 사용해 보았는 데, Chat GPT의 답변 완성도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아서 놀랐던 경험이었습니다.

Chat GPT를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은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자신의 의견이 아닌 AI의 의견대로 지원서, 혹은 수행평가를 제출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 한다면 그 결과물에 대해 평가하는 데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Chat GPT는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람과 매우 유사하게 글을 작성하기 때문입니 다. 또한 앞에서 말했듯이 Chat GPT가 모든 답변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것의 진실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퍼진다면 문제점들이 생길 것입니다.

[20기 GLASO 기자 최아이린 / ireneok07@naver.com]